광양 3대 역사 인물 재조명 토크 콘서트

23일 김문화 체험장서 '생생 김 여행' 세번째 프로그램

신재 최산두·해은 김여익·매천 황현의 삶과 유산 만남

광양시가 광양 3대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토크콘서트는 23일 오후 7시 태인동 광양 김문화 체험장에서 '광양의 3대 전설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다.

2023년 생생문화재 '광양 생생 김 여행' 사업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잠자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다.

토크콘서트는 호남 유림의 거목 신재 최산두, 김 창안자 해은 김여익, 우국지사 매천 황현이 남긴 문화유산과 인물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해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산두는 백운산 봉황의 정기를 받고 광양 봉강면 부저리에서 태어나 홍문관 수찬, 사간원 정언, 사헌부 헌납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호남 삼걸로 불리고 있으며 호남 최대 학맥을 형성한 사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김여익은 태인도에서 은둔하던 중 바다에 떠 있는 나무에 해초가 걸리는 것을 목격하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인 광양 태인도의 풍부한 이점을 살린 김 양식법을 창안해 보급했으며 바다를 경작의 영역으로 확장한 혁신가다.

황현은 2500여 수의 시를 남긴 문장가이자 47년간의 역사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가로 일제의 강압적인 경술국치 이후 이를 통탄하며 결연히 자결한 우국지사이다.

토크콘서트는 광양의 문화유산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3대 역사 인물의 생애와 문화유산, 현대에 미친 영향, 문화유산 활용과 문화관광 상품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김 아트, 용지큰줄다리기를 응용한 작은줄다리기, 짚공예 계란꾸러미 만들기, 전통문화 놀이 체험, 광양김 포토존 촬영 등도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김대성 광양시 향토청년회장은 "'광양의 3대 전설을 만나다'를 통해 광양시민과 관광객들이 광양의 대표 역사 인물인 신재 최산두, 해은 김여익, 매천 황현이 남긴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양균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광양의 역사 인물을 살펴보면서 지역 역사의식 계승 및 발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발굴해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0일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연 '여수산단 탄소중립 실현 및 공공인프라 재구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산단 탄소중립 위해 기반시설 재구축해야"

여수시·산단발전협의회 토론회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을 논의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0일 여수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여수산단 탄소중립 실현 및 공공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시즌 1' 진행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다.

여수시와 발전협의회는 지난 3월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에는 발전협의회와 GS칼텍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여수상공회의소, 전남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여수산학융합원 등이 참여했다.

이 학술 행사는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7차례 열렸다.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對)정부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7차례 학술 행사에 이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기반시설을 저탄소 방향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 청정수소 집적단지와 수소도시 조성 사업 등이 저탄소 실현을 위한 대정부 제언에 포함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고탄소 배출 산업이 밀집된 여수국가산단이 당면한 탄소중립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산단 노후 기반시설 등의 현안 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막대한 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민·관·산·학·연이 공동으로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재해위험지역 정비 내년도 국비 190억원 확보

고흥군은 내년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 19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흥군이 국비를 끌어온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4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 4건(231억원)과 '계속사업' 17건이다.

총 21개 사업지구에 투입할 국비 190억원이 확보됐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4개 사업은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174억원) ▲풍양 고옥3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25억원) ▲두원 안양(14억원)·점암 회계(18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이다.

또 고흥군은 오는 2026년까지 재해위험지구 계속사업 17건에 156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설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읍과 도양읍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공모사업에는 모두 957억원(고흥 459억원·녹동 49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하천이 넘치고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상습적으로 겪어왔다.

해창만 간척지 일대 4곳은 노후교량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420억원을 투입해 공사하고 있다.

도화 이목동제 등 노후 저수지 6곳에는 117억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급경사지가 있는 봉래 진기 마을 등 5개 지구에는 74억원 규모 개선 공사를 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해 없는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재해·재난 대응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23일 열리는 곡성 뚝방마켓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장터가 열리는 곡성천 제방.

곡성 뚝방마켓서 달떡 함께 먹어요

23일 추석맞이 다양한 행사

달떡 나눔·농산물 직거래 장터

곡성군은 오는 23일 열리는 '뚝방마켓'(곡성읍 읍내리 832-91)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뚝방마켓에는 60여 명이 참여해 각종 수공예품과 수제 먹거리를 선보인다.

곡성군 귀농귀촌 협의회는 행사장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남원 제일고교 학생들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직접 만든 옻칠 목공예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뚝방마켓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방문객이 떡을 먹으며 소원을 빌 수 있는 '달떡 나눔'을 한다.

3만원 이상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추석 선물을 보자기 포장해준다.

5만원 이상 사면 보랭 가방을 준다.

이 밖에도 뚝방마켓은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곡성의 대표적인 벼룩시장인 뚝방마켓은 지난 2016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다음 달에는 '가을 소풍'을 주제로 행사를 펼치고,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와 연계된 행사도 마련한다.

11월에는 복고 장터와 '7080 노래'를 즐길 수 있는 '7080렛츠고 축제'가 열린다.

뚝방마켓을 운영하는 뚝방협동조합은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해 시설·친절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 스마트팜 배양액 개발

'바다품애'에 기술 이전

순천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가 전남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로 스마트팜 재배 배양액을 개발했다.

다시마 배양액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한 센터는 이 기술을 완도지역 기업 '바다품애'에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

이 기업은 다시마·미역 등 버려지는 해조류를 활용해 스마트팜 식물재배에 사용하는 배양액을 제조한다.

다시마 배양액을 사용하면 특정 사포닌이 증폭되는 고부가가치 새싹인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유망기술 스케일-업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순천시는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를 순천 5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물전환 산업 111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의 승주읍 일원을 생물전환 그린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에 성공한 새싹인삼 스마트팜 재배 표준화 배양액 제조 기술은 향후 진행될 전남형 균형발전 300 사업인 '생물전환 산업 111 프로젝트'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러한 생물전환 표준화 원료 생산 기술을 통해 순천시 바이오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5년간 10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앞으로 순천대와 함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